

4

Dental hard tissue loss : caused by xerostomia which is induced by iron deficiency anemia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 교실
서덕규*, 박성호

I. 서론

Multiple dental hard tissue loss는 치아 경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으로 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원인 분석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 Dental hard tissue loss를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타액의 분비율이나 조성, pH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구강 건조증 환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salivary risk factor로 인해 치아 경조직 손상에 있어 보다 높은 위험 요인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강 건조증은 여러 가지 원인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구강 건조증 환자는 미각 기능 감소와 작열감, 구강 점막의 발적 등을 호소할 수 있고 칸디다 감염 및 구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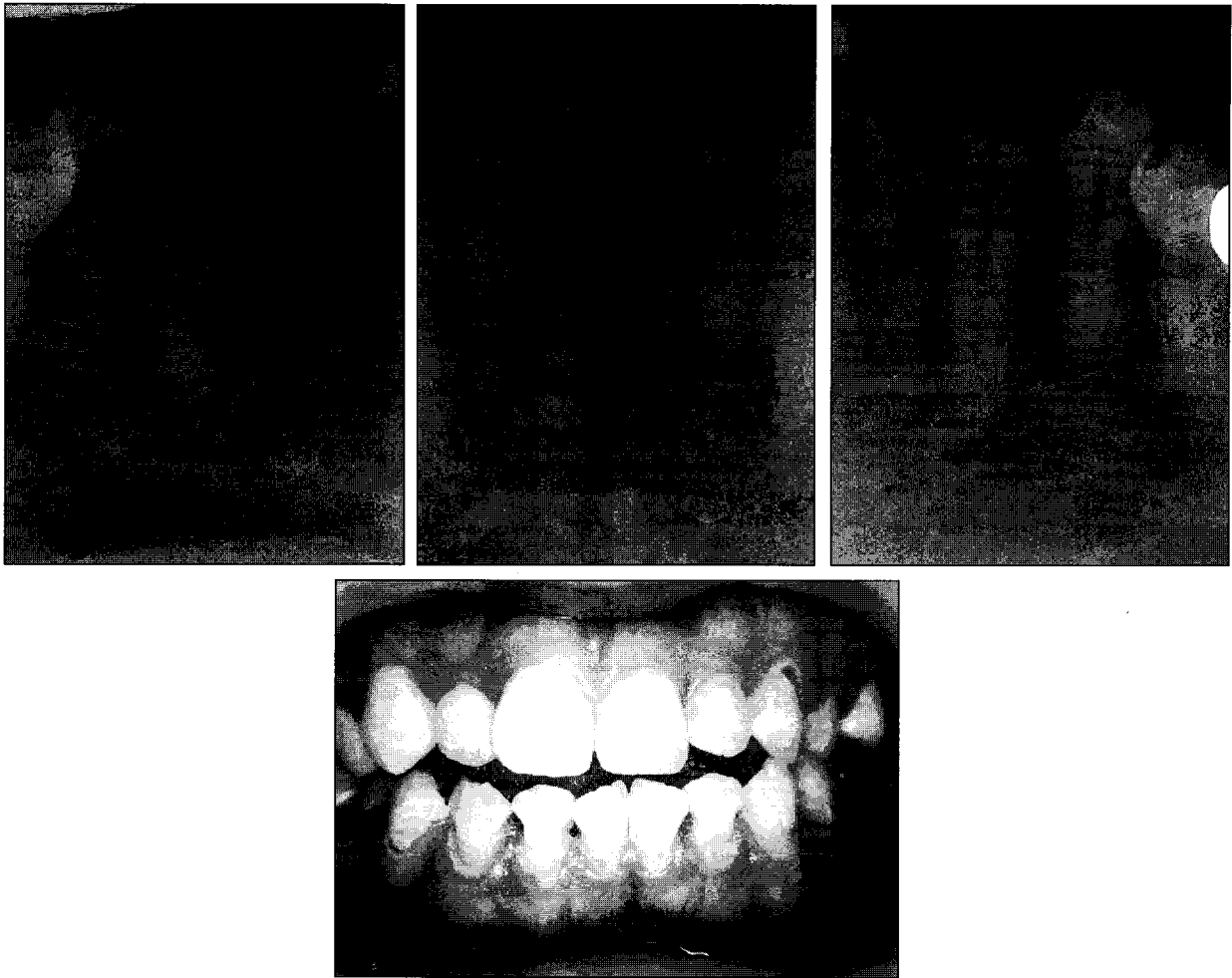
이번 case presentation에서는 iron deficiency anemia에 의한 xerostomia에 기인한, 치아 침식증(erosion)으로 추정되는 증례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II. 임상증례

(1) 증례 1

몇 달 전부터 아래 앞니가 많이 시리고 침이 자주 마른다는 주소로 20세 여환이 2002년 8월 본원 보존과에 내원함. 환자의 과거력 상 비염 외에 특이한 사항 없이 건강한 상태였음. 임상검사 결과 하악 좌우측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 상악 전치부의 multiple dental hard tissue loss가 관찰되었음. 특히 하악 전치부, 소구치부의 ice test시 중등도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었고 침의 분비가 매우 감소한 구강내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당일 구강내과와 혈액내과 협의 진료를 통해 tongue smear test, saliva flow test 및 뇨화학검사, 혈액화학 검사를 의뢰하였음. 이후 smear test결과 a few candida가 발견되었으며 침분비가 정상보다 1/10로 감소한 xerostomia, 혈액검사 소견을 통해 iron-deficiency anemia로 진단됨. 이에 혈액내과에서는 iron 제제의 6개월간의 medication을 시행하였고 구강내과에서는 인공타액을 처방하였으며 본과에서는 레진 수복을 통한 multiple dental hard tissue loss를 치료 진행 중에 있음. 현재 6개월간의 iron 제제 medication으로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침이 마르고 이가 시리다는 증상이 해소된 상태임. 현재 혈액내과, 구강내과에서는 주기적인 검진을 시행중이며 본과에서는 레진 수복을 진행 중에 있음.



Ⅲ. 결 론

Multiple dental hard tissue loss의 diagnosis와 management를 위해서 구강내과 및 혈액내과와의 유기적인 협의 진료를 통해서 xerostomia와 iron deficiency anemia의 원인 치료와 함께 적절한 보존 술식을 통해 환자의 주소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multiple dental hard tissue loss 환자에 대해서는 향후 연 4회 이상의 주기적인 검진과 함께 불소도포와 식이 음식 조절 등의 다각적인 management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